

<자료문의> 법학적성시험연구사업단 TEL 02-888-2095/E-mail research@leet.or.kr

## 법학적성시험 논술 문항에 대한 추가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에서 2016년 12월 1일 확정·발표한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에 따르면, 논술 영역의 경우
  - 2018학년도(2017년 시행) 시험에서는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하고 시험시간은 현행대로 120분을 유지하며,
  - 2019학년도(2018년 시행) 시험부터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고 시험시간을 현행 120분에서 110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에는 사례형 논술 문항의 도입 목적과 형태, 그리고 예시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례형 논술 문항의 정의와 특징을 밝히고 2개의 예시문항을 추가로 공개한다.

[붙임 1 : 정의와 특징]

[붙임 2 : 예시문항]

**□ 정의**

- 논술 영역에서 '사례형' 이란 주어진 사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과 그 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유형임

**□ 특징**

-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인 <사례>가 제시됨
- 사례는 실제 사건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가상의 것일 수도 있음
- 관련된 원칙이나 자료,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이 제공될 수 있음
- 문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즉 문제 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함
- 법조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특정한 양식의 글쓰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글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문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존에도 문항에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례>와 함께 나오는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반면, 2018학년도부터 출제되는 사례형 유형에서는 독해 능력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둠

1. 다음 <사례>와 <생명윤리위원회 윤리규정>, 그리고 <관점>을 읽고, 이어지는 물음에 순서대로 답하시오. (800~1000자, 50점)

— <사 례> —

결혼한 지 5년차 주부인 영원해 씨는 한 달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영원해 씨와 남편은 그동안 아이가 없어 고민을 하던 차에, 6개월 전부터는 불임클리닉에서 체외수정 기술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자신과 남편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에서 수정을 시도하여 5개의 배아를 얻게 되었고, 이제 그 배아를 착상하는 일만 남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다.

한 달간을 슬픔에 잠겨있던 영원해 씨는 드디어 결심하고 불임클리닉의 담당의사 신중한 박사를 찾아갔다. 영원해 씨는 신 박사에게 죽은 남편이 남겨 준 소중한 선물인 배아를 착상하여 아이를 갖겠다고 얘기하였다. 신 박사는 영원해 씨의 뜻을 잘 알겠다고 한 후,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배아를 착상하는 기술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얘기하였다.

— <생명윤리위원회 윤리규정> —

\* 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 점> —

[가] 윤리규정은 배아의 생성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다. 이미 생성된 배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배아가 생성된 경우이므로, 부인이 그 배아를 착상하는 기술을 받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며 이는 윤리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윤리규정은 사망한 사람의 생식세포를 사용하여 배아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이렇게 생성된 배아가 모체에 착상되어 태어나게 되면 나중에 상속 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생성된 배아라 하더라도 모체에 착상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윤리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 (1) <관점> [가]와 [나] 중 하나를 정하여 신중한 박사에게 제출할 의견을 써 보자. 단, 이 경우 자신이 채택하지 않은 관점에 대한 반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00~600자, 30점)
- (2) 자신의 자문 내용에 따르면 위 윤리규정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히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 윤리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써 보자. (300~400자, 20점)

2. 다음 <사례>에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할 때, A구청은 [1안]과 [2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가? 세 가지 원칙 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주어진 <자료>의 모든 항목을 활용하여 논증하시오. (900~1100자, 50점)

— <사 례> —

A구청은 자체 인력과 장비로 관내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있다. 관내는 크게 저소득층 거주지역과 아파트단지 및 상가지역으로 구분된다. 저소득층 거주지역은 주로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도 좁은 까닭에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쓰레기 수거에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 또한 그 지역에는 소득이 낮아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다. 쓰레기 수거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당 쓰레기 수거 횟수가 많지 않아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한편 아파트단지 및 상가지역은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수거가 용이한 편이지만, 구청이 보유한 수거 차량의 부족으로 이 지역도 역시 쓰레기 수거 횟수가 충분히 많지 않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구청의 또 다른 문제로는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만으로 쓰레기 수거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일반 세입금을 사용할 정도로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있다. 이에 A구청의 청소과 담당자는 쓰레기 수거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새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즉, A구청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은 다음 두 가지다.

[1안] 현재와 같이 구청이 보유한 인력과 장비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한다.

[2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기업과 계약하여 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탁한다.

— <원 칙> —

- 효과성: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도록 하라.
- 효율성: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하라.
- 공정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

— <자 료> —

- ① 민간 위탁 방식이 구청 직영 방식에 비해 청소노동자 1인당 1일 평균 쓰레기 수거량이 많았다.
- ② 민간 업체가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낮은 수익성과 수거의 어려움 때문에 구청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할 때보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③ 민간 위탁의 경우, 민간 기업의 서비스 공급 업무에 대한 감독을 위해 구청 내에 전담 관리 인력이 배치된다.